■ KIA 자율훈련…조범현 감독 새 전략

“내년 시즌엔 ‘젊은피’로 승부”

“2008시즌은 젊은피로 승부 하겠다.”

지난달 29일 일본 미야자키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조범현 KIA 감독은 2일 “내년 시즌엔 투·타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KIA에는 젊은 선수들이 넘쳐난다. 특히 마운드에선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들을 어떻게 조련해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년 시즌은 물론 KIA의 미래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감독이 기대주로 꼽는 젊은 마운드는 양현종과 오준형을 비롯해 문현정, 손영민, 고우석, 이범석, 진민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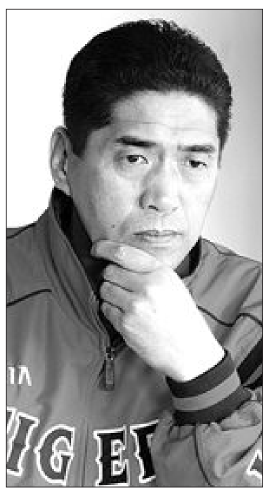
“마운드 양현종·오준형 방망이 김선빈·백용환 우수 인재 적극 활용”

양현종와 오준형 등은 내년 시즌 선발 요원으로 꼽히고, 손영민, 고우석, 이범석, 진민호 등은 남은 훈련 기간동안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선발이나 중간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투수들이다.

조 감독은 또 “타자중에서도 신인 김선빈과 백용환을 비롯해 2년차 김연훈, 거포 기대주 김주형 등 우수한 인재들이 눈에 띈다”며 “내년 4월까지 집중적인 조련을 통해 KIA의 미래를 이끌 재목들로 키워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조 감독은 그러나 이들의 중용에 앞서 ‘혹독한 훈련’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가수 ‘비’를 존경한다는 조 감독은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쉽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내 금언이 됐다”며 젊은 선수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감독은 “프로선수는 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경우 지금 흘린 땀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고참들보다도 몇배 더 강한 훈련을 버텨내야 한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강도높은 훈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조 감독으로부터 이같은 신인 활용 계획을 보고 받은 김조호 KIA 단장도 “젊은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KIA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조 감독은 계약 당시에도 젊은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현재 자신의 계획을 차질없이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믿음직스럽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한편 자율훈련에 들어간 KIA 선수단은 내년 1월부터 60일이 넘는 초장기 해외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랏차” 안뒤축 공격 2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탐라기전국유도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여주대 동신실업팀의 김득현(아래)이 수원시청의 김민규를 상대로 안뒤축 공격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금 넷 ‘씽씽’

1,500·1,000m 남녀 우승

■ ISU 월드컵 4차대회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4차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며 전종목 우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2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남녀 1,500m 1차 레이스 결승과 1,000m 결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금메달 4개를 따냈다.

가장 먼저 금메달 소식을 알린 것은 여자 대표팀 세대교체 주자 신새봄(광문고).

신새봄은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25초420으로 칼리나 로버지(캐나다·2분25초551)를 따돌리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자신의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첫 금메달. 대표팀 막내 박승희(서현중)는 2분25초612로 동메달을 차지했고, 계민정(서현고·2분25초650)은 4위에 올랐다.

남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는 대표팀 에이스로 자리를 굳힌 성시백(연세대·2분17초502)이 찰스 해멀린(캐나다·2분17초811)을 제치고 금메달에 성공했다.

또 올해 대표선발전에서 여자부 1위로 태극마크를 따낸 양신영(분당고·1분33초764)은 여자 1,000m 결승에서 대선배 진선유(단국대·1분33초865)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경택(고양시청)도 남자 1000m 결승에서 간판스타 안현수(한국체대·1분27초469)를 제치고 1분27초396으로 1위에 오르면서 이날 금메달 ‘싹쓸이’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종욱 역전 3점 홈런 한국, 대만에 5-2 승

베이징올림픽야구 亞 예선

한국 야구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투·타의 우위를 앞세워 홈팀 대만과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1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털 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 대만과 첫 경기에서 선발 류현진(한화)과 박찬호(LA 다저스)의 황금계투 속에 이종욱의 역전 3점포에 이어 박진만(삼성)이 쐐기 1점 아치를 그려 5-2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지난 2003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 4-5 역전패와 지난해 도하아시안게임 2-4 패배를 안겼던 대만에 빚을 갚았고 프로 선수가 참가한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10승8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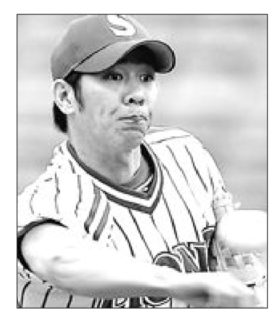
5회까지 3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은 6회 첫 타자 장지엔밍(흥농)에게 우중간안타를 맞자 박찬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박찬호는 무사 1루에서 중심타선의 3번 펑정민(형제), 4번 천진펑(라뉴)을 최고구속 146㎞의 직구와 변화구를 섞어 두 타자 연속 3구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위력적인 피칭을 뽐냈다.

그러나 풀카운트 대결을 펼친 장타이산(흥농)에게 우익선상 2루타로 1점을 빼앗겨 아쉬움이 남았다.

박찬호는 8회 천진펑과 장타이산의 연속안타로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플라이 처리하며 실점하지 않았다.

삼성 잠수함 임창용 투수 일본 야쿠르트 입단 임박



‘언히터블’ 명성을 얻었던 잠수함 투수 임창용(31·전 삼성·사진)의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임창용의 어머니 박정임씨는 2일 “창용이가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로 가는 게 기정사실로 된 것 같다. 조만간 일본에서 계약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며 야쿠르트 입단이 임박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창용은 앞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해외 진출을 시도했던 2004년 시즌 후 일본 라쿠텐 골든 이글스의 3년간 6억엔 조건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1년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중계

3일(월)

▲2007 PGA Q-스쿨 5R(03 : 00·SBS스포츠·SBS골프)

▲07/08 프랑스리그〈올림피크리옹 : 스트라스부르〉(04 : 45·SBS스포츠)

▲올림픽 야구예선〈대한민국 : 필리핀〉(14 : 00·MBCESPN)

▲2007 삼성하키 챔피언스 트로피〈네덜란드 : 대한민국〉(17 : 05·XPORT)

▲07/08 여자프로농구〈금호생명 : 우리은행〉(18 : 50·SBS스포츠)

▲올림픽 야구예선〈대만 : 일본〉(19 : 00·MBCESPN)

4일(화)

▲2007 PGA Q-스쿨 FR(02 : 30·SBS스포츠·SBS골프)

한국여자프로골프, 6년만에 한일대항전 패배

한국여자프로골프가 6년만에 한일대항전에서 일본에 졌다.

한국은 2일 일본 후쿠오카 센추리골프장(파72·6천501야드)에서 열린 제8회 교라쿠컵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 최종일 6승5패1무승부를 거둬 2라운드 합계 11승11패2무승부로 동점을 이룬 뒤 연장전을 벌였으나 무릎을 꿇었다.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첫 주자 이선화(21·CJ)가 요코미네 사쿠라와 비기고 두번째 선수 전미정(25·투어스테이지)도 모로미자토 시노부와 승부를 가리지 못해 장정(27·기업은행)이 세번째 주자로 나섰으나 1m 짜리 파퍼트를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로 우승컵을 일본에 넘겨줬다.

올해 8회째인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에서 한국은 1, 2회 대회에서 일본에 졌으나 이후 3회 대회부터 공동우승(2005년)을 포함해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왔으나 6년 만에 패전의 쓴맛을 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겨울방학 교육학+전공 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물리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매주-(화,목)오후 6시-(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옆 www.hgosi.net 062)222-6790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 부터가 좋습니다 =
7·9급 공무원 大특강
강좌안내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물리학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현재 예약 접수 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개강 12월 3일 사전예약접수 중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공무원 이론반 / 공무원 문제풀이 / 세무직 단독반 / 기술직 단독반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52-0252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한국전기연구원 품질인증제품
지금이 찬스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지금 전화한통이면 설치완료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21평형 398만원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비·설치비 보일러포함(온수기별매)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이어고~ 추워라~ 난방온도 60℃ 기름보일러 사용가정 월난방비용 200,000~400,000원이상 사용가정
우리집=찜질방 난방온도 90℃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가정 한달 난방비 약3~8만원선이면 OK
시공방법 기존의 방바닥은 전혀 손대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떼어낸 자리에 간단하게 연결 부착 시공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약제품 경동 대성 삼양
구입문의 직통 010-9469-9373 (062)673-4981